

POLITICS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국정 설계 설명

안태욱 국힘 광주시당위원장
국회사 장동혁 당대표 면담

국민의힘 안태욱 광주시당위원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당대표, 정희용 사무총장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정 사무총장과 면담에서는 광주시당 활성화와 당 지지를 제고 방안, 지역 현안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장 대표를 만나 광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세 확장 및 당 지지를 제고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광주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적이 있고, 평소 광주에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전반에 호남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정 총장의 능력이 출중한 만큼 지역의 정책 및 예산, 당부 지원 사항 등에 시당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중앙당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민주 평당원 최고위원에
38세 박지원 변호사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 공약에 따라 신설한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지원후보(사진)가 선출됐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10일 브리핑에서 “최종 후보 4인 중 전 당원 투표로 실시한 결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밝혔다.

38세인 박 후보는 전북에서 시민단체 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당선하자마자 공약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돌입해 서류 심사, 면접, 배심원 및 권리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을 선정한 바 있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총 112만명 중 13만6000여명이 참여해 투표율 12.1%를 기록했다.

당선된 박 후보는 전남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평당원 최고위원직이 단순히 거수기나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할 평당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1호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성오 기자

광주시, 독감 무료 예방접종
22일부터…대상·연령별 분산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사업 첫날 쏠림 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군별, 연령별로 접종 시기를 분산해 진행한다.

대상자별 예방 접종은 2회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29일부터이다.

어르신인 경우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예방접종도우미 애플리케이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승기 기자 sky@

30일 회견 이후 두 번째…한미관계 등 답변
검찰개혁·당정관계 등 현안 언급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1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90분간 회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 3일 첫 기자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진행 예정시간은 90분이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 콘셉트다”며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성장동력과 고용, 부동산과 중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기자회견은 앞서 진행된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이 대통령과 기자 간 사전에 약속된 질의 응답 없이 명함추첨이나 현장 지목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첫 기자회견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회견은 한층 구체화한 정책의 설계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내외 산적인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이 곧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간 한미 당국의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과 조건, 향후 추진할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세부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관세협상,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주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군 미래형 전략화’를 비롯한 안보 관련 협상 등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도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선포해질 기미를 보이면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구상도 중요한 회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도 관심이다.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정경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물론 검찰개혁의 속도나 방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당정 간 온도 차 등에 관한 언급이 예상된다.

아권과의 협치, 주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특별법이나 사법개혁안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해양쓰레기 관리, 예방 중심 혁신 전략 시급

양식장·폐어구 재활용 체계화
민관 협력 기반 정책 보완 필요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14만 5000t에 달하는 가운데 연근해 어업과 양식업 비중이 큰 전남은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 확립과 정보 관리 고도화를 통한 해양쓰레기 혁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0일 발간한 ‘JNI 이슈리포트’ 해양쓰레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남의 정책 방향에서 전남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남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5만 8173t으로 전국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해상

기인이 55%였으며, 특히 양식장 기인이 3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같은 해 전남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8만 8000t에 달했고, 약 72%가 해저에 침적된 상태였다. 주요 원인은 플라스틱 부표, 폐어구, 어망 등 어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남은 시·군별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해양폐기물 관리법과 연계한 광역 지자체 차원의 관리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어구·양식품목별 분류 세분화, 지역 간 대응 격차 해소, 연안권 통합 대응을 위한 자원 규정 마련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또한 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 제도를 도입해 수거부터 선별·매각·보상까지 일원화할 필요가 강조했다. 이를 통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고 수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거·처리 및 재활용 인프라 확충도 시

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해상 수거장비 보강 △선상 집하장 확대 설치 △소규모 광역 처리장과 임시 적치장 확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또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인 ASC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양식 관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어촌신활력倍增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후 어선을 활용한 수거 장비 대체, 친환경 처리시설 확충, 평생이모자반과 패각 자원화 모델 개발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AI·드론·위성영상·GIS 기반의 탐지 및 분류 체계를 도입해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위치를 정밀 파악하고, 어업인 인센티브 제도, 청소년 교육·캠페인 등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동시에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연료화·생분해 소재 개발 등 R&D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국제농업박람회, 글로벌 새참 문화 교류

‘월드새참콘테스트’ 참가자 모집…19일까지 접수

전남 농산물로 세계 각국의 새참 문화를 공유하는 특별 경연이 마련된다.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를 앞두고 ‘월드새참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각 나라의 농경 식문화와 교류하며 전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남지역 대학 조리학과 재학생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2인 1팀, 총 10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이메일(wkdwdln1210@naver.com)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자격증명서, 작품 레시피, 서약서 등이다. 접수 이후에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연락처로 우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선은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박람회 주무대에서 열린다. 참가팀에는 팀당 10만원의 재료비가 지원되며, 심사는 조리 과정, 메뉴 구성, 맛, 표



현력 등 6개 항목을 종합해 진행된다.

수상은 총 3개 팀에게 돌아간다. 대상(1팀)은 도지사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1팀)은 상금 60만 원, 우수상(1팀)은 상금 40만 원이 주어진다. 나머지 7개 팀에도 전남도농업기술원장 상금이 수여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도, 내년 기초생활보장 3000명 추가 지원

생계급여 최대 12만7000원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10% 완화

전남도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3000명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확정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5000원으로,

올해 609만8000원보다 6.51% 오른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이를 반영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82만원, 4인 가구 월 207만8000원으로 각각 5만5000원, 12만7000원 인상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

이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에 포함된다. 의료급여는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따라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한다.

주거급여도 강화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4급지 기준)는 1인 가구 월 2만 1000원, 4인 가구 월 3만2000원씩 오르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 연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을 지원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문화·청년 교류로 목포서 ‘영호남 하나’

상생협력 화합대축전…내일까지 화합의 장 마련

전남도와 경북도가 손을 맞잡고 문화·청년 교류를 통해 화합과 협력의 장을 열었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10일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영호남이 함께하는 Real Korea!’를 슬로건으로 2025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2일까지 이어지며, 국민대통합을 목표로 두 지역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영호남 화합대축전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전남과 경북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왔다. 올해는 영호남 청년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무대와 함께 상생관을 운영하며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전남·경북 청년 기업인 교류 프로그램은 두 지역 성장의 토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대중 전남

도교육감, 조강훈 한국예총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전했다. 양 도 농업의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과 영호남 웹툰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김영록 지사와 김학홍 부지사는 웹툰 공모전 전시, 청년작가 교류전, AI-아트 앤 테크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양 지역의 교류 현장을 확인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개막식 무대는 영호남 어린이들과 세계합창 챔피언 ‘호모니이즈’가 함께한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하며 화합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제는 지역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야 할 때다”며 “경북과 전남, 영호남이 힘을 모아 ‘리얼 코리아’,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협치 외치며 야당 파괴 ‘표리부동’ 국정운영”

송언석,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내란 청산’을 강조하면서 위헌정당 심판론을 띄우는 데 대해 “결합하면 ‘해신’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한다.”

주거급여도 강화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4급지 기준)는 1인 가구 월 2만 1000원, 4인 가구 월 3만2000원씩 오르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 연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을 지원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더 센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한 뒤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 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꼬집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속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